

## Successful Pleurodesis of Air-Leakage with Self-Blood in the Pneumothorax Complicated from the Severe Chronic Lung Diseases

한양대학교 내과학교실

유정수\*, 김정미, 신동호, 양석철, 윤호주, 박성수, 이정희

**배경:** 심한 만성 폐질환 환자에서 발생하는 기흉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이다. 흉관삽관으로 쉽게 치료되지 않으며 기저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있는 환자에서 air leakage가 계속될 때, doxycycline pleurodesis가 우선 안전한 치료 방법이나, 이 방법이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실정이다.

**목적:** 심한 만성 폐질환 환자에서 합병된 기흉이, 흉관 삽관 및 doxycycline pleurodesis 치료로도 계속적인 air-leakage가 있는 경우, 환자 자신의 혈액을 이용한 늑막유착술의 효과를 관찰하였다.

**방법:** 흉관 삽관 및 doxycycline pleurodesis 치료로도 계속적인 air-leakage가 있는, 심한 만성 폐질환 환자에서 발생한 기흉(총 15예)에서 환자 자신의 혈액 25ml 와 20% 포도당 25 ml를 혼합하여 즉시 흉관을 통하여 늑막 유착술을 시행하였다. 늑막 유착술은 3회에서 많게는 20회까지 시도하였다.

**결과:** 15예 모두에서 늑막유착이 성공하였다. 흉통과 미열은 있었으나 doxycycline 시행시 보다는 경미하였다. 3-5년동안의 장기 추적한 4예의 환자에서 재발과 합병증은 없었다. 모든 환자에서 늑막내 2차 세균감염은 없었다.

**결론:** 비록 많지 않은 예에서 시도하여 본 결과이지만, 환자 혈액을 이용한 늑막 유착술은 상당히 안전하고, 합병증이 없으며, 또 가장 경제적이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.

초진된 식도암 환자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의 의의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일반외과학교실\*

안강현\*, 박재민, 김영삼, 최승원, 이준구, 장윤수

양동규, 김형중, 김세규, 장준, 김성규, 이원영, 김충배\*

**목적:** 식도암으로 초진된 환자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상 이상이 동반되는 빈도를 확인하고 식도암의 기관지 침범여부와 여러 가지 검사상의 소견 그리고 환자의 임상상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여, 식도암 초진시 기관지 내시경이 필요한 조건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.

**방법:** 1989년 3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내원하여 식도암으로 진단된 175예의 환자 중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실시한 115예를 대상으로 기관지 내시경상의 이상소견과 환자의 임상양상,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소견, 그리고 비흉 식도 조영술 등을 상호 비교하였다. 기관지 내시경 검사상 관찰되는 병변은 Type I: 기관지 내시경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, Type II: 간접침윤 소견으로 육안상 직접적인 점막침윤의 근거가 없이 압박이나 반착이 있는 경우, Type III: 직접적인 침윤으로 결절상 점막병변, 종양의 돌출이 관찰되는 경우로 하였고 흉부전산화 단층촬영상의 병변의 분류는 Class A: 종양과 기관지간에 전혀 연관이 없는 경우, Class B: 종양과 기관 또는 기관지간에 근접소견을 보이는 경우, Class C: 종양에 의해 기관 또는 기관지의 압박이 관찰되는 경우로 하였다.

**결과:**

1) 대상환자 115예에서 식도암의 위치는 상부 식도암이 11.3%(13/115), 중부 식도암 63.4%(73/115), 하부 식도암 25.2%(29/115)였다. 2) 식도 조영술상 병변의 길이가 길수록 기관지 내시경상 이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( $p < 0.05$ ). 3) 흉부 증상은 type I, II 병변인 경우 각각 25.3%, 20.5%에서 동반되었으나 type III 병변인 경우에는 71.4%(10/14)에서 흉부 증상이 동반되어 흉부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식도암 환자에서 육안적으로 기관지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. 4) 기관지 내시경상 Type III 병변인 경우에는 대부분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병변에 의한 압박소견이(class C) 관찰되었다.

**결론:** 식도 조영술상 병변의 길이가 길거나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병변에 의한 기관지 압박 소견이 있는 경우, 그리고 뚜렷한 흉부 증상이 있는 경우 등의 3가지 소견 중 2가지이상이 양성인 경우에는 식도암 초진시 기관지 내시경상 이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, 흉부 증상이 없는 짧은 길이의 식도 병변이고 흉부 X-선이나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식도암 초진시 기관지 내시경검사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.